

HEADLINE NEWS

전체예산의 1/4 투입해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교육개혁」 추진 (홍콩)

홍콩정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홍콩이 가진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번 교육개혁의 5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사회를 구축한다. 둘째,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각자의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실시한다. 셋째, 학생 스스로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일선 교사들의 자질과 직업 의식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홍콩정부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도 교육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5% 증가한 610억 홍콩달러로, 홍콩정부 전체 예산의 약 1/4에 해당한다.

(www.info.gov.hk/gia/general/200203/10/0309096.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역사건축물 무료 개방하는 날' 운영 (오타와市)
- ②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도시계획지침 마련 (파리)
- ③ 재해 대처·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고베)

도시환경

- ④ CNG 택시 구입·운영 촉진 위해 보조금 지급 로스앤젤레스
- ⑤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으로 추진 (샌프란시스코/솔트레이크시티)
- ⑥ 'SOC 계획단계'에서 환경사전영향평가 실시 검토 (동경)
- ⑦ 쇼핑봉투 줄이기 위해 「쇼핑봉투세」 도입 (동경 : 스기나미區)
- ⑧ '환경재앙' 막기 위한 「환경기본계획」 수립 (동경)

도시교통

- ⑨ 출퇴근시 지하철 운행지체 막기 위해 「핑퐁계획」 실시 (런던)

사회복지

- ⑩ 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주는 여가 문화카드 지급 (프랑크푸르트)
- ⑪ 노인대상 '가정보조 서비스' 대폭 개선 (파리)

행.재정

- ⑫ 월드컵 기간 중 유흥·퇴폐업소 광고전단지 '단속' 추진 (센다이市)
- ⑬ NPO 지원 위해 기업체 퇴직자 파견·교육 실시 (동경)

① '역사건축물 무료 개방하는 날' 운영 (오타와市)

캐나다 오타와市는 역사적·건축학적인 유산으로 기념하는 '역사건축물'을 일반에 무료 개방하는 「Doors Open Ottawa」 행사를 금년 봄에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990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처음 시작, 현재 유럽의 약 4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Doors Open」 행사는 평상시에는 개방하지 않던 유명 건축물들을 행사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축제이다.

市문화관광과가 행사추진시민위원회, 市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행사는 5월 25~26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오타와市에는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건축조형물이 풍부하고, 시민들도 이에 대한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www.city.ottawa.on.ca/city_services/culture/doorsopen/index_en.shtml)

②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도시계획지침 마련 (파리)

프랑스 도시계획체계가 개정되어 기존의 토지계획도(POS,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가 지역 도시계획도(PLU)로 바뀔에 따라, 파리市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를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관련단체들이 자치적으로 도시계획도를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철도당국, 중앙정부 등과 임시조직체를 구성해 주거, 교통,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틀을 새롭게 짤 계획이다.

각 구(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 기획안을 마련, 각 구청에 전시했으며, 주민들은 각 구(區)의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획안은 철도 및 대중교통, 전기, 주택부문 등 여러 국가기관들의 조정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만든 각 지역의 계획안이 내년도 市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 말부터 새로운 파리의 도시계획도가 실행될 예정이다.

(르 파리지영, 2. 6)

3] 재해 대처·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고베)

일본 고베市는 지진재해 관련 긴급대처 요령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직원 지진재해뱅크」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진재해 당시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처리한 업무의 종류 및 처리요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및 정리는 3월말에 완료하고, 등록된 정보를 통해 타 도시 재해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市직원들이 3~5년을 주기로 보직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진을 직접 겪은 직원들의 수도 해마다 줄어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했다.

데이터 수집은 지난해 말 전직원 및 교원 총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현재 계장급이나 교감급 중 지진을 직접 경험한 3,487명과 이들이 처리한 관련자료들이 「지진재해뱅크」에 등록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본부나 대피소 운영 등의 긴급상황 대응요령 3,168건, 라이프라인 복구 1,806건, 주택이나 항구 복구 930건, 구호 등 기타 194건이다. 데이터는 각 부서와 구(區)에 배포될 예정이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직원은 훈련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지진재해 관리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市는 또한, 2000년 돗토리縣 서부 지진시 관련직원을 파견한 것과 같이 타 도시 재해지원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고베신문, 3. 15)

4] CNG 택시 구입·운영 촉진 위해 보조금 지급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州 남부해안 대기질 관리연합체(AQMD)는 최근 300대 이상의 신규 청정연료(CNG) 택시의 구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약 3백만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CNG 택시는 동종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지구온난화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스모그 원인물질도 88% 정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효과가 크다.

AQMD의 재정정보조정책에 따라, 택시운송업체는 CNG 차량 1대당 10,000달러를 지출하고, AQMD는 9,543달러를 보조하며, 나머지 비용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에너지 관리국과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추진위원회의 구매할인프로그램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市 소재 6개 택시운송업체는 신규 CNG 택시를 구입해 5개 공항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www.aqmd.gov/news1/Governing_Board/2001/Bs12_21_01.htm)

5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으로 추진(샌프란시스코 / 솔트레이크시티)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市와 솔트레이크시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계획을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市는 2012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20%를 감축키로 하고, 환경보호국이 주도하는 기후보호실행계획을 채택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2006년까지 1990년도 대비 약 7%의 배출량 삭감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市녹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주요 추진내용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대중교통수단의 육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공공용지의 보전, 市 전역에 걸친 에너지 효율성 증진 대책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지방정부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ICLEI'의 회원도시로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www.iclei.org/co2)

6 'SOC 계획단계' 에서 환경사전영향평가 실시 검토 (동경)

일본 東京都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도로건설이나 도시재개발과 관련, 계획작성단계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계획평가제도안」의 중간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이 제안되었다.

심의회는 우선, 지금까지의 「사업평가」시 都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던 사업자의 조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계획평가」대상사업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평가」대상의 2배 수준을 제안했다. 그리고 동일 부지 내에서 복수의 개발사업을 병행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지 30ha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日本經濟新聞, 3. 2)

7] 쇼핑봉투 줄이기 위해 「쇼핑봉투세」 도입 (동경: 스기나미區)

일본 東京都 스기나미區는 최근 일본 최초로 쇼핑객이 소매점 등에서 받은 쇼핑봉투 1매에 대해 5엔을 세금 형식으로 쇼핑객에게 부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매업자가 區에 납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쇼핑봉투稅 조례」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상점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 “조례 실시에 대해 구민 대부분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쇼핑봉투稅 조례안」은 區의회에서 장기간 큰 논란이 되어왔으나, 최근 70%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쇼핑봉투稅가 도입되면 예상 세입액은 4~5억 엔으로 전망된다.

區는 또한, 4월중으로 ‘쇼핑봉투줄이기협의회’를 설치해 쇼핑봉투 감소 목표치를 정한 후, 곧 대대적인 ‘쇼핑봉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區는 이 운동을 통해 쇼핑봉투 감소 가능성을 알아본 후, 조례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운동을 통해 쇼핑봉투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쇼핑봉투稅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區상점연합회’와 함께 소매점에서 쇼핑봉투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4엔짜리 실(Seal)을 건네주는 「에코 실」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실시를 위해 실 가격 4엔 중 2엔은 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區의회에서는 이 제도를 쇼핑봉투稅와 병행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도쿄신문, 3. 19) (www.media.ne.jp/web/jcpskd/rezian.htm)

8 '환경재앙' 막기 위한 「환경기본계획」 수립 (동경)

일본 東京都는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 열섬 및 지구온난화 현상 등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東京都 환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都는 시책 방향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확보, 도시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 확보, 자연환경의 보존과 재생으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6% 삭감키로 하는 등 달성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다.

都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자, 都民, 민간단체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환경기본계획 기본지침, 도시계획 및 사업 시행시의 상세지침 등을 정해 민간사업자나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2/03/tokushu/kankyo.htm)

9 출퇴근시 지하철 운행지체 막기 위해 「핑퐁계획」 실시 (런던)

영국 런던市 지하철당국이 시민들의 출퇴근시 지하철 운행 지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핑퐁계획」이 성공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탁구 라켓 모양의 배턴(Baton)을 이용한다고 해 「핑퐁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작년 10월부터 시민들의 출퇴근시간대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계획에 따라 승무원들은 눈에 띄는 형광색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밝은 흰색 배턴을 이용해 플랫폼의 승객들을 고루 분산시키고, 전동차 운전자에게 적정 출발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사진 참조).

모니터링 결과, 전동차 운전자는 복잡한 플랫폼이 정리되어 전동차 문을 여닫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계획은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지하철당국은 향후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승무원 운용, 전동차 운행지체 감소, 지하철 안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www.thetube.com)



저소득층에게 할인혜택 주는 「여가문화카드」 지급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할인카드」를 발행·지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은 시내외 수영장, 동물원, 식물원, 시립도서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과 공연장 입장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강좌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카드신청자격은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독신인 경우 세후(稅後) 소득이 연간 86,920유로, 2인 가족은 연간 112,484유로, 3인 가족은 연간 138,049유로를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패스 (Frankfurt Pass)」라고 불리는 이 카드는 현재 3만명에게 배부되었는데, 市당국은 앞으로 대상자를 3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Frankfurter Rundschau, 3. 8)

노인대상 ‘가정보조 서비스’ 대폭 개선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최근 노인대상 ‘가정보조 서비스’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현재 시행중인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지급 외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추가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간도 야간 시간대뿐만 아니라 낮에까지 확대하고, 365일 휴일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노인들의 경제·사회적인 조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노인들은 각 구(區)에 신청하면 60~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건강상태별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市는 현재 3만명의 노인들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르 파리지앵, 1. 15)

월드컵 기간 중 ‘유흥·튀페업소 광고전단지’ 단속 추진 (센다이市)

일본 미야기縣은 2002 월드컵에 대비해 경찰당국과 함께 센다이市 변화가에 범람하는 이른바 ‘핑크 광고전단지’를 줄이기 위한 「정화작전」에 돌입했다. 당국은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들을 겨냥한 ‘외국어 핑크 광고전단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유흥업소 광고전단지 단속을 위해 ‘유흥업환경정화작전’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어 6월 18일 까지 ‘제2기 정화작전’을 실시중이다.

(아사히신문, 3. 9)

NPO 지원 위해 기업체 퇴직자 파견·교육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는 올해부터 NPO에 행정업무 경험이 많은 기업체의 퇴직자들을 파견하는 등 NPO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都가 NPO 지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NPO의 재정기반이 취약한 데 대한 지원 성격과 함께, 都의 재정난과 직원 수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NPO에서 담당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앞으로 都는 새로운 거리 만들거나 교육 등 12개 사업분야에 퇴직자들을 파견, NPO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에 관한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都는 재무·경리업무를 중심으로 기업체에서 업무경험이 많은 퇴직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파견대상은 복지, 환경 보전, 거리 만들기, 문화, 사회교육 등 12개 사업분야이다. 都는 올 여름부터 100명 이상을 150여 개의 NPO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원 요청을 한 모든 NPO에 해당 요원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都는 또한, 올해 NPO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NPO와 연계해 추진한 사업은 전년도에 약 1.5배인 71건에 달했다.

(日本經濟新聞, 3. 8)